

믿을 수 있는 어려움

¹흔히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²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막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가 그것이다. ³이렇게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구분하는 견해는 적극적 자유를 속박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소극적 자유만을 속박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⁴하지만 이것은 속박 개념의 분석에 의해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⁵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속박들 사이에 두 가지 중요한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⁶그 구분이란 적극적 속박과 소극적 속박, 그리고 내적 속박과 외적 속박 간의 구분이다. ⁷나아가 이러한 속박들은 총칭으로 얹혀 네 개의 범주, 곧 내적인 적극적 속박, ㉠ 내적인 소극적 속박, 외적인 적극적 속박, 그리고 외적인 소극적 속박으로 나뉠 수 있다.

⁸적극적 속박은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 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⁹협박, 방해, 신체의 구속이 그런 속박의 예이다. ¹⁰그에 반해 소극적 속박은 어떤 것이 없어서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¹¹예컨대, 돈, 힘, 기술, 지식 등의 부족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다. ¹²이러한 조건들은 부재하는 조건이란 점에서 소극적이다.

¹³내적 속박과 외적 속박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아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는가에 달려 있다. ¹⁴만일 자아를 양심이나 이성으로 좁게 한정하면, 거의 모든 속박들이 외적인 것이 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다. ¹⁵그래서 내적 속박과 외적 속박의 구분을 현실에 적용하려면, 단순히 공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¹⁶이 경우 외적 속박은 사람의 심신 밖에서 오는 것이고, 그 밖의 모든 속박들은, 근육통이든 두통이든 저급한 욕망이든 그 자신에게는 다 내적인 것이 된다.

¹⁷이렇게 속박을 구분하고 나서, ‘소극적 / 적극적 속박’과 ‘소극적 / 적극적 자유’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¹⁸소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란 무언가가 없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것은 하지 못하던 것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¹⁹그러므로 그것은 소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의 현존인 것이다. ²⁰조건의 현존이 어떤 사람에게 외적일 때에는 기회라 ㉢ 하고 내적일 때에는 능력이라고 한다. ²¹하지만 그런 조건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다 소극적 속박인 것은 아니다. ²²그 조건의 부재가 주체에게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속박이다. ²³또한 속박은 자연적인 무능력과도 구분되어야 한다. ²⁴자연의 법칙이나 신체적 구조로 말미암아 실현이 불가능한 비현실적 욕구와 관련된 부재는 속박으로 볼 수 없다.

²⁵만일 적극적 요인만을 속박으로 간주한다면, 고급 승용차

를 사고 싶은 극빈자의 경우 그가 고급 승용차를 사고 싶은 욕구에 대한 적극적 속박이 없어서 자유롭다고 말해야 하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²⁶왜냐하면 그에게는 고급 승용차를 살 돈이 없으므로 돈의 부족이라는 소극적 속박을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²⁷마찬가지로, 만일 속박을 외적 요인들에만 국한한다면, 고열로 심하게 아픈 사람은 일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외적 속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²⁸왜냐하면 그의 내부에 그가 일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속박이 있기 때문이다. ²⁹그래서 내적 속박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³⁰이처럼 우리가 소극적 속박과 내적 속박을 인정한다면, 두 가지 자유 모두를 속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³¹따라서 나로 하여금 X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없다면 X를 할 자유가 있다. ³²역으로, 내가 X를 할 자유가 있다면, 아무 것도 나로 하여금 X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³³요컨대 속박이 없다면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가 있다면 속박이 없는 것이다.

📌 지문의 POINT

2011학년도 MEET에 출제되었던 지문이다. 이 SET는 이전 지문과 마찬가지로 글의 기본 구조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한다. 우선 글의 핵심 문제(P)에 따라 지문을 관통해야 한다. 첫 단락에서는 자유를 적극적, 소극적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자유와 속박의 관계를 제대로 명시하지 못하는 문제(P)를 제기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속박 개념을 분석하여 속박을 네 범주로 구분하고(S), 이를 통해 자유를 이분법으로 이해하는 것의 한계를 밝힌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글 중간에 제시되는 이항대립의 구조와 극단의 범주를 출제의 POINT로 삼는데, 이는 수능용 지문은 아니어도 독서 문제 출제에서 평가원이 일관된 입장에 따르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우리는 시험장에서 독서 지문을 가지고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평가원과 문제를 놓고 게임을 하는 것이다. 그 게임의 규칙은 우리의 생각보다 단순하고 일관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이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 1~2번 문장에서는 사람들이 흔히 적극적 자유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이고, 소극적 자유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며 두 개를 구분짓는 통념을 제시한다. 3번 문장에서 알 수 있듯, 이 통념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소극적 자유만이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번 문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을 제기하며 '속박 개념'을 분석하여 비판하고자 한다. 필자는 '둘 중 하나만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 보는 (3번 문장) 것이 아니라, 둘 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로 설명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2~4문단에서는 '속박 개념의 분석'을 통해 속박을 적극적 속박/소극적 속박, 외적 속박/내적 속박으로 분류한다. 기존에는 적극적 속박과 외적 속박만을 인정하며 속박의 범위를 좁게 보았기에,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소극적 자유만을 뜻하는 한계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속박을 세분화한 것이다. 그리고 5~6문단에서는 예시를 들어 적극적 속박뿐만 아니라 소극적 속박을, 외적 속박뿐만 아니라 내적 속박을 속박으로 인정하게 되면, 소극적 자유는 물론이고 적극적 자유 역시 속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결론적으로 7문단의 33번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필자는 기존에 두 자유 중 하나만을 속박으로 연결한 견해를 부정하고, '속박이 없다면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다면 속박이 없는 것'이라며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모두 속박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기존 견해	필자의 견해
인정하는 속박	적극적 속박, 외적 속박	적극적 속박/소극적 속박, 외적 속박/내적 속박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두 종류만 속박으로 본다면, 소극적 자유만 가능	네 종류 모두 속박으로 인정한다면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모두 가능

1

¹흔히 자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²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자유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막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가 그것이다. ³이렇게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구분하는 견해는 적극적 자유를 속박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소극적 자유만을 속박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⁴하지만 이것은 속박 개념의 분석에 의해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 1문단의 POINT

1. 화제(WHAT) :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막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2. 글의 전개 방식(HOW) : 4번 문장에서 '소극적 자유만을 속박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속박 개념의 분석에 의해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했으니, 그 비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겠군.

1문단에서 짚고 넘어갈 POINT는 두 가지이다.

우선,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개념'이 나왔으니 3번 읽고 KEYWORD를 정리해야겠다. 게다가 이 두 개념은 그냥 주어진 것도 아니고, 지문의 화제가 되고 있는 개념인 동시에 두 개념을 '이항 대립'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3번 읽고 KEYWORD를 정리하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이다.

두 번째로는 중심 구조의 파악이다. 4번 문장에서 '소극적 자유만을 속박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속박 개념의 분석에 의해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말을 PARAPHRASING하면 '소극적 자유만을 속박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즉, 여기서 P를 제시한 것이고, '속박 개념의 분석'에 의해 효과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속박 개념의 분석'이 S가 되겠다. 다만, 우리는 아직 '속박 개념의 분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지문 분석

7

³¹따라서 나로 하여금 X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없다면 X를 할 자유가 있다. ³²역으로, 내가 X를 할 자유가 있다면, 아무 것도 나로 하여금 X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 ³³요컨대 속박이 없다면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가 있다면 속박이 없는 것이다.

7문단의 POINT

◎ 자유와 속박의 관계

→ 속박이 없다면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가 있다면 속박이 없는 것

이 지문을 읽었을 때에는 글의 구조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내용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느낄 수 있다. 인문 제재가 힘든 학생이었다면 특히 그럴 것이다. 그런 학생이었다면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단락 내(간) 연결에 집중하도록 하자.

문항 분석

1. 밑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은?

- ① 적극적 속박이 없는 사람에게는 소극적 속박도 없다.
- ② 소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다.
- ③ 적극적 자유이든 소극적 자유이든 속박의 부재로 설명된다.
- ④ 속박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⑤ 소극적 자유는 기회로, 적극적 자유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출제의 포인트

지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지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잘 파악했다면 답은 금방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정답 해설 ★★★★★

답 ③

3번 문장에 따르면 자유를 구분하는 일반적 통념에서 '속박'은 '소극적 자유'만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그러나 4번 문장에서 필자는 '속박'으로 '소극적 자유'만을 설명하는 일반적 통념을 비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본문에서 '속박 개념'의 분석을 통해 '소극적 속박'과 '내적 속박'의 존재를 도출하고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모두에 속박 개념이 적용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그리고 30번 문장에서 '이처럼 우리가 소극적 속박과 내적 속박을 인정한다면, 두 가지 자유 모두를 속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정리하고 있다. 필자는 속박 개념의 분석을 통해 속박을 세분화하고 기존보다 범위를 넓혀서, 모든 자유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설명하고 싶은 것이다. 따라서 해당 선지가 밑글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① 8번 문장에 따르면 '적극적 속박'은 '어떤 것이 있어서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적극적 속박'이 없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막는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0번 문장에 따르면 '소극적 속박'은 '어떤 것이 없어서 원하는 것을 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소극적 속박'이 없다는 것은 원하는 것을 하는 데 필요한 '어떤 것'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25번 문장의 예시에서 '극빈자'는 '고급 승용차'를 사는 행위를 막는 '어떤 것'이 없기에 '적극적 속박'에서는 자유롭다. 한편 '고급 승용차'를 사는 데에 필요한 '어떤 것'인 '돈'이 없기에 '소극적 속박'에 놓여 있다. 이처럼 적극적 속박이 없어도 소극적 속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선지의 진술은 밑글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② 2번 문장에 따르면 자유를 설명하는 일반적 통념에서 '소극적 자유'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다. 2문단 이후에서는 '속박 개념'을 분석하며 '속박'을 '적극적/소극적 속박', '내적/외적 속박'으로 구분하는데, 30번 문장에서 '소극적 속박과 내적 속박을 인정한다면, 두 가지 자유 모두를 속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소극적 속박'은 속박 개념의 분석을 통해 인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소극적 자유에는 단지 소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적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한정하는 선지의 서술은 밑글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 ④ 33번 문장에서는 밑글의 내용을 정리하며 '자유'와 '속박'의 관계를 '속박이 없다면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가 있다면 속박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즉 '속박의 부재가 곧 자유'이므로 '속박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는 밑글의 주장에 따르면 불가능한 경우이다.
- ⑤ 19, 20번 문장에서는 '소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소정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의 현존'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공간'을 기준으로 '기회'와 '능력'으로 구분한다. 6문단에서는 '속박 개념'을 '소극적 속박'과 '내적 속박'까지로 확장하고 '두 가지 자유 모두를 속박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7문단에서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의 개념을 '적극적 자유'에도 적용하여,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를 아우르는 '자유', 그 자체라는 7문단의 논리가 도출된다. 결국 '소극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인 '기회'와 '능력'은 밑글의 주장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